

## 인제 황태 미국 수출 중단 ... '러-우 전쟁' 때문



▲ 작업이 한창인 인제 황태덕장. 사진=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진 미국의 러시아 경제 봉쇄가 인제지역 황태수출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원산지가 대부분 러시아산인 인제의 명태 관련 상품 대다수가 미국의 수입 금지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1일 '강원일보'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 경제제재 일환으로 본토로의 러시아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황태업계는 이날 미국 바이어들로부터 원산지가 러시아인 인제 용대리 명태 제품은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황태 관련 업체가 인제지역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타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에서 황태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하는 9개 업체의 수출액은 4억2,000만 원이다. 이는 지역 전체 수출액의 약 40%에 달한다. 더욱이 러시아산을 미국 알래스카산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원가비용이 10% 늘어나는 만큼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 황태 관련 법인을 대표하는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미국 수출이 금지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현지에서는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며 "대책이 나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 수출협회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수출업체들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역대 최대 '세수 핑크' ... 지난해 국세 56조 덜 걷혀

지난해 한국의 국세가 예상보다 56조4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세수 핑크(세수 결손)다. 선거를 앞두고 추가 감세 조치가 이어지는 터라 세수 부족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지난 31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344조1천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51조9천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56조4천억원이 덜 들어왔다.

세목별로 지난해 예산과 대비해 법인세 세수가 24조6천억원, 소득세가 16조원 각각 덜 걷혔다. 부가가



▲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사진=imbc.com

치세 세수 결손분도 9조4천억원에 달했다.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3대 세목에서만 50조원이 구멍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도 1조1천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전체 국세 가운데 예상보다 세금이 더 들어온 건 증권거래세(1조1천억원)와 교육세·주세(각 4천억원)뿐이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 감소는 기업 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당시 각종 세정 지원(납부기한 연장·유예 등)으로 2022년에 더 걷힌 세수가 10조2천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실질적인 세수 감소액(전년 대비)은 41조7천억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 인구이동 49년 만에 최저 ... 고령화·부동산 한파 등 여파

지난해 한국내 인구이동이 4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한파에 따른 영향이다.

지난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은 이날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인구는 612만9000명으로 2022년보다 0.4%(2만3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1974년(529만7969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임대 수요가 줄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고령화 심화 등의 영향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 인구 이동 규모가 통상 경기와도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경기 둔화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해 아랫집을 옮기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인구이동 사유를 보면 '주택'이 34%(총 208만6000명)로 가장 많았다. 이외 가족(24.1%), 직업(22.8%)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 내 이동은 전체 이동자 중 65%(398만6000명), 시도 간 이동은 35%(214만3000명)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할 때 시도 내 이동은 0.2%p(8000명) 늘었고 시도 간 이동은 1.4%p(3만1000명) 줄었다.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순유입이 발생한 시도는 경기(4만5000명), 인천(3만4000명), 충남(1만6000명) 등이다. 반면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순유출이 나타난 곳은 서울(-3만1000명), 경남(-1만6000명), 부산(-1만1000명) 등이다.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